

정부 “확산세는 ‘정체’… 안심하긴 이르다”

다중이용시설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각별 주의를”
“지역감염 안정화 이후 제3국 유입 차단이 중요 과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방역의 성패는 중국 외 ‘제3국’을 통해 유입될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윤대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오늘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확

산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확산 추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여전히 많은 확진환자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 일요일 의뢰된 검사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소보다 검사의뢰가 적은 6000여건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며칠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513명으로, 전날보

다는 131명 증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1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이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천지나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의 환자 유입 방어, 지역사회 전파 저지 전략을 넘어 장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환자 유입 차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해 안정화 단계에 속속히 정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후 단계에서는 3국 유입의 차단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입국금지 또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진자 규모와 주변국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조처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인위생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린 10일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우산을 쓰고 보호구 착용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액보유량 3일분 수준… 헌혈 관심 필요

안정적 보유량 기준은 5일분
개인·단체 헌혈 활성화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계속 안정적인 수준 아래에 머물자 보건당국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혈액 보유량은 연일 3일분 안팎에 그치고 있다.

혈액 보유량은 지난 6일 3일분, 7일 3.2일분, 8일 3.8일분 등에 그쳤다.

이는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적정 수준보다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혈액 당국은 안정적인 혈액 보유량을 5일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등에서 수술 과정에서 급하게 혈액이 필요한데도 수요를 맞추지 못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혈액 보유량 부족은 코로나19 발생 후 설 연휴와 방학 등이 겹친 데다 감염 우려로 인해 개인 헌혈이 뜸 끊기고, 초·중·고교 휴교와 재택근무 등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된 영향이 크다.

앞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혈액이 부족해지자 헌혈 활성화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헌혈 과정에서 감염되지 않겠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채혈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또 혈액원 모든 직원의 몸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채혈 때 직원뿐 아니라 헌혈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민 75%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중”

코바코 ‘소비자행태조사’ 발표
86% 관련 뉴스 관심있게 시청

국민 10명 중 7~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행태조사(MCR)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코로나19 등의 외부 요인을 이유로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80%는 실내에서 TV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6%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관심있게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남성보다는 여성의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컸고, 특히 20대·50대 여성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는 응답자의 57%가 TV를 이용했고, 32%가 인터넷 포털 기사를 이용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응답자의 85%가 마스크를, 54%가 손세정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바코는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연합뉴스

“마스크 판매 정보 공개한다”
다양한 앱서비스 활용 가능

정부는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량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판매처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앱’ 같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매처와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정보화진흥원은 이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개발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격리 생활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 10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임시 생활 시설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 2주만에 100명대

확진 총 7513명·사망 54명
제주, 4명으로 전국 최저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51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9일) 0시에 비해 131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

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이다.

신규 확진자 131명 가운데 102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명, 인천 4명, 세종 2명, 경기 11명, 충남 2명 등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 등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6명 증가했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6780명으로

로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2%를 차지했다. 대구 5663명, 경북 1117명이다.

다른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141명, 부산 96명, 인천 13명, 광주 15명, 대전 18명, 울산 24명, 세종 8명, 경기 163명, 강원 28명, 충북 25명, 충남 104명, 전북 7명, 전남 4명, 경남 83명, 제주 4명 등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54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3명(52~54번째)이 추가됐다. 전체 치명률은 0.7%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6.8%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용도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천빌라

자외선에 켜(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펌프+화목검용

조천면 대율리 가정집 설치

초가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성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